

## 도요보 - 셔츠지의 해외생산 체제 확립

도요보는 동업 타사보다도 해외생산체제가 늦어져, 셔츠지가 한동안 계속 해서 감소하였는데, 뒤늦게나마 셔츠지의 시세에 맞는 가격대(價格帶)에 따라 전량 국내생산과 국내·외 생산의 믹스(mix), 전량 해외 생산의 3가지 생산 시스템 중에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그 체제가 거의 완성되어 앞으로는 중·저가격품은 가격대에 알맞게 국내와 국외생산을 믹스하거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생산할 수도 있게 되었다.

도요보는 작년(2000년)부터 인도네시아의 UTI(유니론·텍스타일·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TTM(도요보·텍스타일·말레이시아)을 활용하여 당분간 셔츠지 전생산량의 20%를 해외 생산품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UTI는 파트너인 이도쥬상사와의 조정을 끝내고 금년 추동제품부터 도요보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셔츠지 판매를 시작하였고, 도요보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TTM은 과거에는 미면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집트면이나 수피마면과 같은 초장섬유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수억엔을 투자하여 혼타면 계열을 증설하고 내년 춘하상품부터 일부를 해외에서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해외생산시설의 보강을 끝냈으므로 국내생산시설은 이미 줄만큼 줄어서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시설은 원면, 실, 가공 등의 특화로 고부가가치소재로 전환함으로써 가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는 셔츠·어패럴 업계와의 제휴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개발해 낼 것이다